

파견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캐나다
	대학명	빅토리아 대학교
파견기간	2024년 9월 ~ 2024년 12월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정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기제 ※ 파견대학 수학 전공: General 영어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유학생 보험 같은 경우 학교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드미 보험으로 아팠을 때 온라인으로 의사와 컨택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즉, 일반적인 여행자 보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의 친구 중 한명은 3개월짜리 마이뱅크 보험을 들고 왔습니다. 보험을 결정하실 때는 다른것보다 보험에 들어있는 항목이 중요한데, 마이뱅크는 여러 가지 항목을 커버해줄 수 있어서 좋은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분실이나 캐리어 분실시 보상, 식중독에 걸렸을 때 보상 등과 같은 실질적인 보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드미 보험으로도 처방전을 받고 약을 받을 수 있지만 가드미 보험이 학기 전체를 커버하는지 또한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다른 여행자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기간만 커버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가드미 보험같은 경우 빅토리아라는 지역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 밴쿠버나 캐나다 동부쪽으로 여행을 가거나 학기가 끝난 뒤에 미국과 같은 여행을 가게 되면 가드미 보험으로는 커버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아셔야합니다. 그렇기에 여행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출국 전에 미리 여행 나라에 따른 여행자보험을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자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캐나다 비자인 eTA비자입니다. 저의 경우 3개월 즉, 한학기만 다녀왔기 때문에 1년 이상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eTA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TA비자 신청할 때 유의하실 부분은 가짜 사이트가 정말 많아서 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유튜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비자 발급은 일주일 내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eTA비자의 경우 학생비자가 아닌 여행비자이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미국 ESTA 비자입니다. 캐나다에 가는데 왜 미국 비자가 필요한지 질문하실 수 있지만 미국을 통해 경유를 해서 캐나다에 가는 경우 미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ESTA비자는 하루 만에 나오기 때문에 발급하기가 간단하고,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미국을 경유하여 캐나다에 가는 경우 구비하여 가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항공권은 가능하면 미리 사두시는 경우가 좋습니다. 보통 2~3개월 전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항공권 가격은 좌석이 다 빠지면 가격이 오르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실 때 미리 사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항공권 사실 때 팁은 네이버 항공권과 스카이스캐너를 비교하셔서 사시면 좋습니다. 스카이스캐너의 경우 요일별로 가격이 다른걸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말보다는 평일에 가시는게 저렴한 가격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가기 위해서 경유를 선택했습니다. 제 인생 처음 경유를 미국 시애틀에서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비행으로 체력적으로 피곤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장기간 비행을 힘들어하신다면 직항을 추천 드립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필요 물품의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변환기를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개 이상 챙겨가시길 바라고,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변환기도 있는데 그거 사셔도 편하실 것 같네요. 나머지는 교환학생 리스트를 검색하셔서 하나씩 미리 구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8월에 캐나다에 가신다면 꼭 반팔을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9월 초까지 생각보다 덥습니다. 9월 초에 오시는 분들도 반팔 챙기세요. 이너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벌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을 위해서 패딩을 꼭 챙기세요. 패딩 넣기가 힘들지만 압축팩을 사셔서 활용하시면 편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정 힘들다면 빅토리아에 세컨드 핸드 샵인 중고가게에 가서서 싼 가격으로 패딩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마다 캐리어 무게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짐 싸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 대한항공을 탔기 때문에 큰 캐리어 2개, 각각 최대 23kg씩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리어 2개를 가져갔지만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캐리어 제일 큰 사이즈 1개를 가져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여행하실때나 귀국하실 때 캐리어 2개를 가지고 돌아다니가 정말 힘들고, 짐을 맡길 때도 돈을 내야하는데 돈이 두배로 듭니다. 하지만 제일 큰 캐리어 하나를 들고 가신다면 여행을 위한 큰 가방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빅토리아의 경우 영어를 씁니다. 섬 지역이라서 정말 예쁘고 사람들이 매우 친절합니다. 치안에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국만큼이나 안전합니다. 총 소지도 사냥용 총을 제외하고 불법이고 범죤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는 홈리스피플이 많이 있습니다. 대마초를 피고 다운타운 거리에서 잠을 자서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의 경우는 한국의 1.5배정도 됩니다. 제가 다녀온 시점에서 캐나다 1달러에 한화 1000원이었습니다. 홈스테이 비용은 1350달러였습니다. 홈스테이 비용과 학비가 비싼편이지만 외식과 여행을 줄이신다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통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고 저녁은 홈스테이에서 주기 때문에 외식과 여행을 안하신다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가신다면 비행기값이나 렌트값 등 한번에 많이 비용이 쓰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식만 하신다면 한달에 50만원도 충분합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저는 1순위가 캐나다 2순위가 미국이었습니다. 기준은 영어를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을 갈 수 있다면 미국에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물가가 상상 이상으로 높고,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캐나다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서부쪽 빅토리아와 동부쪽 대학교로 두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2학기 파견자일 경우 무조건 서부쪽 빅토리아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빅토리아라는 지역이 캐나다에서 가장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많이 춥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부의 경우 매우 춥기 때문에 서부를 추천 드립니다.

나-2. 공항 - 학교

홈스테이를 선택하신다면 학교 정책 상 호스트가 공항으로 데리러 와줍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기 전에 호스트에게 연락하셔서 비행기 표랑 언제 도착할지 등을 얘기하고 공항에서 호스트 집까지 호스트 차타고 오시면 됩니다. 학교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 됩니다. Google map 사용하시면 무슨 버스 타는지 알 수 있고 UMO라는 카드를 학교에서 무료로 주는데 그걸 버스 탈 때 3개월 동안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학교에서 홈스테이까지 거리가 30분정도 소요 됐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저는 정규가 아닌 학기제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Academic과 또 다른 하나는 General입니다. Academic은 외국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코스로 주로 글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General은 일상적인 언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코스로 스피킹에 집중을 합니다. 저는 General코스를 선택했고, 처음 학교에 가면 글쓰기와 스피킹 시험을 봅니다. 두 개의 시험으로 General 안에 서도 반이 나뉘집니다. 제일 낮은 반은 200G부터 제일 높은 반은 490G입니다. 반마다 수업내용이 다 다릅니다. 저는 490G를 갔었는데 제일 높은 반이다보니 발표 활동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른 반은 한학기 동안 5번 정도 발표를 했는데 저희 반은 20번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울 수 있었던것도 많았고 영어 실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피킹의 경우 같은 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때가 많기 때문에 높은 반에 들어가야 비슷한 실력을 가진 다른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학기 시작한 후에 한번 정도 반 재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반이 자신의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반 조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기 반이 자신의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하향으로 반조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충북대학교 정책 상으로 무조건 홈스테이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홈스테이의 경우 운이 정말 중요합니다. 홈스테이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캐나다 생활이 정말 크게 바뀝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홈스테이 신청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자기가 될 좋아하고 뭐가 관심이 있고 어떤 호스트를 만나기 원하는지 등을 쓰는데 최대한 자세하고 원하는걸 정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좀 더 좋은 호스트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선택란에 자녀를 둔 호스트를 만날지 아니면 없는 호스트를 만날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자녀를 둔 호스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호스트의 자녀들과 친해져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를 판단하실 때 크게 학교와의 거리, 호스트가 친절한지, 내 방은 좋은지, 제공되는 식사는 맛이 있는지 등을 생각하시고 지내기 불편하시면 홈스테이 조정자에게 가서 꼭 상담을 받으시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1달을 지내야지 바꿀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제 친구들은 호스트와의 문제가 많이 있었어서 바꾸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참지 마시고 꼭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5. 교내•외 활동

반이 배정에 따라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뉩니다. 이걸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오전반이 좋습니다. 오후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반이 지정되면 오전 8시 30분까지 등교하여 오후 12시 45분에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선생님은 두분으로 나뉘어서 화~금까지 수업을 하시고 월요일은 특별한 수업을 위해 또다른 선생님 두분이서 수업을 해주십니다. 메인은 화~금까지 수업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자유롭게 생활하시면 되는데 저는 동아리를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Korean conversation Cafe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혹은 Carsa라고 무료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서 헬스도 하고 농구도 하고 탁구도 쳤습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먼저 학교 가시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영어 공부를 미리 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가서도 반 배정때 유리하고 탄력을 받아서 영어 실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한국인들과 지내지 마시고 외국인들과 다니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들

중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들과 다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일부로 충대생들끼리도 한국말 쓰지 않고 서로 대화할 때 영어로 대화 했습니다.

일상생활은 하고 싶으신걸 다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평일에는 생각보다 학교 숙제에 집중하느라 시간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꼭 빅토리아든지 벤쿠버든지 여행을 다녀오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시간과 돈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곳을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유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벤쿠버 여행이라든지, 부차드가든, 하키경기, 돌고래구경, 골든스트림 등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수업 끝나고 오후에 이벤트들이 있는데 참여하시면 상품도 타고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음식은 캐나다가 다문화여서 모든 음식이 다 있습니다. 한식, 일식, 중식, 멕시코식, 양식 다 있습니다. 외식하실 때 먹고 싶으신거 드시면 됩니다. 한식이 가격이 좀 비싸도 맛있어요. 한식집으로 The Bob, 수라 두 곳 추천 드립니다. 음식 드시고 나서 팁은 10~15% 내시면 되요! 단체 손님의 경우는 팁이 자동으로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교통의 경우는 버스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노선이 좋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많고 차가 있다면 돌아다니기 정말 좋습니다. 렌트를 하신다면 캐나다 교통법규가 다르니까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꼭 트레블월렛이나 트레블로그 카드 만들고 가세요! 하나은행이나 토스뱅크 좋습니다. 전 하나은행 트레블로그 카드 썼는데 한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도 풀기가 쉽지 않으니깐 다른 은행 알아보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스테이 비용 낼 때 보통 현금으로 주는데, Vancity라는 은행에 가시면 수수료 없이 현금 인출 하실 수 있습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빅토리아 내에서 여행지 추천을 드리자면, 살트 스프링 섬도 좋고 벤쿠버 섬도 좋습니다. 페리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안에서는 다운타운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시고 업타운도 가보시면 됩니다. 또한 BC 레지슬레이티브 어셈블리, 비콘 힐, 로즈 가든, 피셔맨스 와프 공원, 로얄 BC 뮤지엄, 차이나 타운, 해틀리 성, 스완 호, 톨미 마운틴, 더글라스 마운틴, 폴랜드 토드 주립공원, 비버 호 등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렌트가 가능하시다면 토피노, 벤쿠버에 휘슬러 가보세요. 한가지를 꼭 가야된다면 캐나다 밴프 여행에서 레이크 루이스를 꼭 가시기를 강력 추천 드립니다. 겨울에 가면 호수가 얼어있으니까 여름이나 겨울 전에 가시는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학기 종료 후에 저는 미국 LA와 라스베가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7일 정도였는데 150만원 정도 들었어요. 캐나다 동부랑 미국이랑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날씨도 좋고 여행하기도 좋은 미국으로 선택했고 후회 없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 이런 기회 정말 흔치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많은걸 경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div>수업 듣는 건물</div>	<div>CARSA(헬스건물)</div>
	
<div>수업 듣는 반</div>	<div>동아리 모집</div>